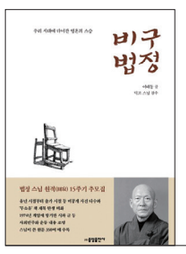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5~3/11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법구경:진리의말씀(양장) 선물용 경전	석지현 옮김	민족사	6	묘법연화경(개정판)	이운허 옮김	동국역경원
2	성철스님의 돈황본육조단경	성철 스님	장경각	7	불멸(1)영원한 지금의 메시지*개정판	이각 지음	지혜의눈
3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8	비움과 금강경:근본불교와 대승에서의 공	시현 번역과 해설	사유수
4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9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수록*법정스님 원적10주기 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5	서장(대혜보각선사서) 간화선의 교과서	조계종 교육원 편찬	조계종출판사	10	서장*대혜스님의 선수행편지 모음집	고우/전재강	운주사

책세상

다시 불러보는 시대의 어른 '비구 법정'



비구법정
여태동 글, 덕조 스님 감수
중앙출판사 / 2만9천원

원적 15주기 기념해 평전 출간
민주화 인사 등 새로운 이야기도
유년기부터 원적까지 삶 재조명
원고 · 미공개 사진 100여 장 수록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법정 스님. 현대불교 DB

한 시대의 법문이었던 '무소유'의 법정 스님(1932~2010) 원적 15주기를 맞아 스님의 평전이 출간됐다.

〈비구 법정〉에서는 지금까지 대중에게 알려진 법정 스님의 삶과 더불어 1970년대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역사 등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법정 스님의 집필 원고 350여 장을 수록해 스님을 좀 더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책은 △법정 스님의 생애 △출가 초기 활동과 사상적 토대 형성 △불교 교단 바로세우기와 사회민주화운동 △불교생태주의 사유형성과 자기관조 △종교간 대화와 세계체험 △법정 스님의 주요 저서 등 크게 여섯 개의 장에서 스님의 삶과 공부를 살펴본다.

책은 30년 넘게 불교신문 기자로 재직하며 편집국장과 논설위원을 역임한 여태동 기자가 자신의 박사논문 '법정의 시대정신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와 2020년 불교언론문화상(신문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기사를 종합한 것이다.

책에는 저자가 현장을 취재하면서 발굴한 유년시절과 학창시절, 청년시절의 행적이 자세하게 적혀있다. 법정 스님은 중학교 시절부터 목포에서 유학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책에는 스님의 성적표와 미공개 사진 100여 장을 수록했으며, 저서 〈무소유〉의 출간 과정에서의 인연담도 담겨있다. 스님은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을 탐독한 후 운허 스님을 도와 〈불교사전〉을 편찬했으며, 한문으로 된 팔만대장경을 한글화 하는 데 앞장섰다. 이러한 학문적 토대 위에서 집필된 법정 스님의 저서에는 초기 불교사상에부터 반야·법화·화엄·선사상 등 불교 전체를 아우르는 실천적 가르침이 녹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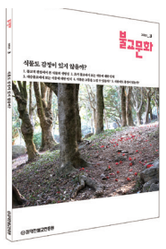
법정 스님은 해인사 학인 시절에 문학과 철학·예술 등의 영역을 넘나들며 공부했고, 함석헌, 장준하, 황산덕 등과 교유하며 사회에 대한 관심을 넓히기 시작했다. 책에 의하면 스님은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사로 이름을 올렸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고초를 겪었다. 또한 1980년대 광주민중항쟁을 목도한 스님은 군사독재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법정 스님은 대중이 알고 있는 자연주의 에세이스트였을 뿐 아니라 한국의 민주화, 세계 평화, 전쟁 반대 등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운동가이기도 했다.

법정 스님의 사상은 그가 원적에 든 이후 저서가 절판돼 연구 환경이 위축됐지만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저자는 "이 책 〈비구 법정〉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다양하게 연구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법정 스님의 다양한 가르침이 '법정학'으로 정립되어 후세에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여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자양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스님의 부재로 법문 '무소유'가 무색해진 시절에서 스님을 기억할 수 있는 출간은 그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다. '어른'이 절실한 시대, 어른의 책 한 권이 반가운 이유다.

식물도 감정이 있을까



월간 '불교문화' 3월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불교대중문화지 월간 〈불교문화〉 3월호(통권 제295호)가 발간됐다.

3월호 특집은 '식물도 감정이 있지 않을까'로 불교가 식물을 어떻게 바라봐 왔는지, 그리고 현대적 시각에서 이를 어떻게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본다.

민태영 한국불교식물연구원 원장은 '불교적 관점에서 본 식물의 생명성'을 통해 불교에서 식물을 감정과 의식이 없는 무생물로 간주했지만, 동시에 초목을 해치는 행위를 죄로 여기며 생명체로 인식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한다.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국불교인문학과 교수는 '초기불교에서 보는 식물에 대한 인식'에서 〈숫따니빠따〉 등 일부 경전에서는 식물의 생명을 인정하는 듯한 구절이 있으며, 불교 수행자들이 식물 파괴를 삼가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미루어 식물이 유정이든 무정이든 존중해야 할 존재로 여겨졌다고 봤다.

더불어 특집에는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의 '대승불교에서 보는 식물에 대한 인식' △남효창 숲연구소 이사장의 '식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 탄공 스님의 '식물에도 불성이 있는가' 등이 실렸다.

2025년 상반기 '아름다운 말을 쓰자' 캠페인에서는 유영만 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가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이며,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바를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 사고의 깊이와 삶의 태도가 달라짐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절집으로 가는 길-전라남도 구례군 화엄사', '10분으로 배우는 불교-현명한 장로(長老)와 어리석은 늙은이' 등 풍성한 읽을거리가 담겼다.

신중일 기자

비천, 천상을 노래하다



월간 '불광' 3월호

하늘을 나는 천인(天人), '비천(飛天)'. 사찰에 가면 법당 천장이나 벽화, 석탑, 범종 등에 새겨진 비천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비천은 부처님 설법이나 극락정토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데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비천은 천의(天衣) 자락을 휘날리며 꽃비를 뿌리거나, 춤·음악·향을 공양하며 부처님의 설법을 찬탄한다.

월간 〈불광〉 3월호(통권 605호)는 '비천, 천상세계를 노래하다'를 특집 주제로 풍부한 사진·도판과 함께 '비천'을 소개한다.

'포토에세이'에서는 울진 불영사, 완주 송광사, 영덕 장육사, 문경 대승사 등 사찰 법당 속 비천을 사진으로 담았다.

박수정 신경주대 악기제작학과 교수는 성덕대왕신종, 오대산 상원사 동종, 양평 상원사 동종 등 범종에 새겨진 다양한 비천상을 집중 조명하며, 주수완 우석대 경영학부 예술경영전공 교수는 불교미술에서는 배경음악(코러스) 같은 존재인 불교미술 속 비천을 조명한다. 간다라의 불설법 부조에서 보이는 비천과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미술로 알려진 5세기 전반의 고구려 장천1호 무덤에 그려진 벽화 속 비천, 석탑·승탑에 새겨진 비천 등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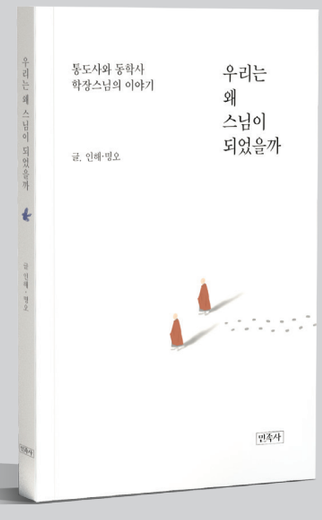
비천이라는 말은 인도 신화 속 존재인 압사라스(Āpsaras)를 포함해, 때때로 이들을 부인으로 삼고 있는 간다르바(Gandharva, 건달바), 그리고 긴나라(Kinnara) 무리 등을 포함하며 넓게는 깔라빙가(Kalaviṅga, 가릉빈가) 등도 포함된다.

심재관 상지대 교수, 강희정 서강대 동아연구소장은 이러한 인도 신화 속 비천인 압사라스의 이야기와 함께 앙코르와트·반티아이 스레이에 부조된 압사라를 조명한다. 강애경 박사는 비천과 유사한 기독교의 천사에 대해 살펴본다.

신중일 기자

우리는 왜 스님이 되었을까

통도사 학장 인해 스님과 동학사 학장 명오 스님의 출가 이야기



승려의 삶을 사는 내내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입은
옷이 불편하다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부디 자신의 인연에 꼭 맞는 옷을 찾아
입으며 참된 나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다행히 여기에 내 옷이 있었다.

인해

스물 네 살의 청춘,
그 좋은 나이에 출가했다.
출가를 방해하는 여러 핑계를
나의 발심發心이 이겼다. 출가 생활은
감동의 도가니였다. 절은 상상 이상의
매력이 철철 넘치는 곳이었고, 스님들은
멋스러웠다. 자유와 행복, 출가의 백미이다.

명오

글 인해, 명오 | 17,500원 | 296쪽

인해 통도사 승가대학 학장. 해인사 강원과 조계종립승가대학원을 졸업, 국사편찬위원회 사료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동국대학교 선학과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 초대 이사장, 동국대학교, 해인사, 수덕사, 동화사 승가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는 통도사 김해포교당 바라밀선원 주지를 맡고 있다. 저서는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우리말 법화경》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남종의 선사상 연구〉,〈혜능의 좌선관〉외 다수가 있다. 제31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하였다.

명오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 동학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선학과·영문학과(학사), 호주 시드니대학교 종교학과 석사, 은해사 조계종립승가대학원 수료,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역서《대승기신론열망소》로 제1회 반야학술상 저역상, 저서《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로 제19회 불교출판문화상에서 올해의 불서 10 선정 및 붓다북 학술상을 수상했다. 논문은〈초기불교 병인론과 대승불교 사경 공덕 및 심신치유에 관한 연구〉,〈초기불교와 대승불교《열반경》에 나타난 재가불자의 계율 사상 연구〉등 다수가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